

# 개심사



개심사는 함경북도 명천군 보촌리 칠보산 개심대에 있는 절이다.  
 개심사를 처음 지은 년대는 발해때인 826년이며 1784년에 고쳐 세우고 여러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다.  
 개심사는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심검당, 음향각, 관음전, 산신각 등 다섯채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합각집으로서 기둥은 배부른기둥이며 두공은 계공 한단을 더 놓고 바깥 5포, 안 7포의 포식두공으로 화려하게 짜올리었다. 모루단청을 입혀 화려하게 꾸민 대웅전에는

내부에 소란반자를 뒀으며 불상이 있다.  
 심검당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큰 규모의 건물이다. 심검당정면의 기둥은 배부른기둥이고 뒤면은 네모기둥이다. 기둥우에는 구조적으로 탐탁하고 부드러운감을 주는 2익공두공을 올렸다.  
 관음전, 산신각은 네모지붕이고 음향각은 우진각지붕으로서 독특한 형식을 갖추고있다.  
 민족의 귀중한 문화적재보인 개심사는 공화국의 역사유적보존정책에 의하여 원상그대로 보존되어있다.

글 송영



해칠보의 아침

칠보산은 함경북도 명천군과 화대군, 명간군, 어랑군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조선의 6대명산중의 하나입니다.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어난 풍치로 하여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알려졌으며 산이름도 진귀한 일곱가지의 보물에 비기어 칠보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독특한 산악미와 계곡미, 바다경치를 계절에 따라 펼쳐보이는 명승지 칠보산은 지역별특성과 탐승로정에 따라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지역으로 나뉘어있습니다.